

기고



정홍식 포천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의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할 경우 중증질환자 11만여명이 약1천250억원의 의료비 부

담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의 주역인 6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외래 진료료를 받을 경우에 성인의 70% 수준으로 감감하고, 성장 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은 2006.1월부터 면제하였음)

또한,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 들게 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휴직자 보험료는 휴직기간 중 보수 수준에 관계없이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법 제63조 제2항)하여 휴직 중 보수가 없거나 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육아 휴직자의 경우 정부 직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 가입자에 대하여 휴직 기간중 보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의 부과 체계로 실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실제 수입은 없으나 보험료는 상승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실직 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 부담금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끊임없이 발생되던 민원 불만이 해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이란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민들의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면 머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에세이 52



이오현  
국립교육연구원 교수

### 창의성 교육을 위하여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실은 그 때 당시의 인식으로는 대단한 발상의 대전환이었다. 시대를 초월하여 발전의 엔진은 늘 발상의 대전환이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필자가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필자도 이 점에 착안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발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반드시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서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핑퐁' 식으로 즉흥적인 답변이 많다. 물론 일문일답식의 발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를 요하는 발문에서도 일반적인 답변 자세는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다 하겠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관계를 지각

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창의성은 어떤 바탕에서 길러지는 것일까?

평상시에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하여 '생각할 여유'를 주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길러 주는 것이 좋겠다.

먼저, 주위 환경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무지개는 왜 일곱 가지 색깔을 지니고 있을까?', '바닷물은 왜 짭까?', '왜 흐린 날 제비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날아다닐까?' 등등 생활 주변에서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데서 창의성은 출발된다.

둘째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이디어를 내보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즉, 호기심을 통해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발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또한 어떤 문제 해결을 했을 때는 성취 동기를 북돋워주어 준다.

셋째로,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뜻 깊은 자신감을 갖고 남들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깨끗한 마음, 즉, 독

창성을 길러 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주제를 정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가도 주변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다. 창의성 발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다.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초지일관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투창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지는 근면성과 어렵거나 지루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의 기본 습관은 근면성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호기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정신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즉, 폐쇄적인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신이 요구된다.

평상시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 다섯 가지 점에 유의해서 지도한다면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반감기가 5년이라고 한다. 5년이면 지금까지의 정보량의 두 배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과학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다.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삶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창의력을 위한 교육이란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력을 위한 교육 공동체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유기고

### 인생의 찬미 향기나는 만남



박혜자  
주말명예기자단장

만남에는 여러가 종류가 있다.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꾸려가는 인연의 끈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새로운 가치가 된다. 만남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인생이란 슬픔, 비극, 모순 등 피할 수 없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난과 격변 좌절 속에서도 웃으면서 인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시간과 시간, 잠, 사람, 일에 대한 스트레스, 공식적인 비공식 수련을 통해 자각적인 마음으로 안정과 조화를 이루고 산다. 내 자신속에 있는 에너지를 발견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큰불을 끄기 위해서는 작은 불을 맞지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작은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은 인색할지 모르나 지금은 시간투자에 삶의 자연스러운 바람에 힘을 이용할 뿐이다.

내 인생살이에서 어떤 힘을 바란다면 적절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자신의 주도하에 대처해 나가고 싶다.

누구든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알면 삶의 자연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고 자체도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생활상의 압력에 짓눌려있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통제할 능력이 없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다소간의 내면 깊은 한 만족감과 절망보다는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다.

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고 해져 나갈 자신도 있다. 나의 삶도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남을 포용하는 이해하는 지각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때론 고달픈도 배고픈도 우울할 때도, 고독할 때도 있었고 자존심이 상할때도 뼈아픈 기억도 적지 않았지만 여고시절 안정적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서 씩은 가지에서는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잘라내지 않으면 금방 열리지마져 전염된다는 말씀이 언제나 항상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참으렵이란 세글자 하루 세 번만 외치면 살인도 면한다는 친정엄마의 말씀 또한 내가 살아가는 대처능력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침묵 속에 살고 싶고 침묵을 경험하리라.

매사에 여유를 갖고 시간활용을 철저히 하고, 일에 전념하고 봉사하면서 자신과 몸과 마음의 통일을 찾고 싶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살다보면 행복이란 친구와 친해질 수 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가을의 숲에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해보고 싶다.

자유기고

### 선단동 아동센터(공부방)



윤미숙  
주말명예기자

선단교회(담임목사 임병수)는 목사님 사택을 시설로 꾸며 훌륭한 학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사님 내외는 조립식 건물로 이사와고 정원 39명 학생에게 방과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원센터 YMCA에서 실무자들을 파견해 인력지원을 하고 있으며 센터장(유급), 주방실장(유급) 각각 1명씩 봉사하고 있으며 인원이 충당되지 못해 목사님께서 직접 시장을 보시고 매사에 적극 참여하신다.

화, 목, 금요일은 선단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견학도 가끔 나가서 실질적인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13년전 교회를 개척하고 선단동에 정착하

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착안해 2~3년 동안 준비해 지금은 공평 같은 공간이다.

임병수 목사님은 학생 39명, 교사 3명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올 6월부터 월 200만원씩을 포천사에서 지원받아 아이들의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규제도 심하고, 경제도 어렵지만 어린이집 아동센터, 독거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어 가족같은 어울림 타운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다.

이곳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식사제공은 물론 무료학습체험행사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엄두도 못내는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포천시의 보조를 받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삶,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을 통해 함께 잡아 끌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족애를 형성해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2007 포천중 · 일고 총동문 한마음 축제

선 · 후배간 멘토링 협약 및 아름다운가게 포천점과 함께하는 자선행사

가을이 익어가는 추억의 계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인연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곳, 반월산 밑 우리를 마음속 영원한 운동장 운동장에 선 · 후배 모두 모여 못다한 정 다시 나누고,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뛰어봅시다. 특히 금년은 반세기가 넘도록 포천교육의 중심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온 우리의 모교 포천중학교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로서 개교 60주년의 긴 역사를 더듬어보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개교 6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등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하며 동문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일시: 2007년 10월 21일(셋째 일요일) 09:00 ~ 16:30**

**장소: 포천일고(구 포천중고) 교정(우천시 모교체육관)**

**주최: 포천중 · 일고 총동문회 <주관: 고18(중20)회 동창회>**

**후원: 포천중 · 일고 운영위원회 및 어머니회, 동문산악회 및 골프회**

▷ **한마음 축제**

- 재학생 사물놀이, 관악부 연주
- 장학금, 학교발전기금 및 연구기금 전달
- 효자, 효부, 의인 등 동문호행상 시상
- 기별대항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
- 동문 및 재학생 기증물품 수집 및 판매기부

▷ **역사자료전시회**    • 포천중 개교 60주년기념 자료전시

▷ **선 · 후배간 멘토링 협약식**    • 협약체결, 도서전달 및 후배격려,

▷ **아름다운가게포천점과 함께하는 자선행사**    • 동문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

※ 60주년 기념사업 및 한마음축제를 위한 찬조 및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찬조금 접수: 농협 225047-51-093050 예금주 박권빈  
경품 및 상품접수 ☎031-535-8336, 011-9791-8800 전형중

**포천중 · 일고 총동문회 회장 조성인 올림**

\*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포천일고내 \* Tel : 031-535-8336 Fax : 031-535-8234 \* 홈페이지 http://www.ipoccheon.co.kr